

유통·화장품 한 주 파악잡기



Analyst 안지영 6915-5675 [jyahn@ibks.com]

주간 유통/화장품 뉴스

“쿠팡, 2021년 IPO 준비” (이데일리 20.2.9)

쿠팡이 2021년 기업공개(IPO)를 준비한다고 블룸버그가 보도. 블룸버그는 쿠팡을 잘 아는 지인의 말을 인용해 “쿠팡이 내년에 상장될 것이기 때문에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고 9일 보도함. 지난달 쿠팡이 알베르토 포나로 신임 최고재무관리자(CFO, Chief Finance Officer)를 영입했을 때부터 IPO 준비설이 퍼졌지만 외신이 이 문제를 다룬 것은 처음. 블룸버그는 “알베르토 포나로 영입에 앞서 쿠팡은 월마트 출신 제이 조겐센을 채용했는데 그는 최고 총무 고문이자 준법책임자로서 이 소식에 소프트뱅크 주가는 도쿄 증시에서 3.8%나 올랐다”고 전함. 아울러 “2018년 11월 손정의 비전 펀드가 쿠팡에 20억 달러를 투자할 때 90억 달러로 평가됐다고 정통한 사람들이 전했다”며 “쿠팡에 따르면 한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세계에서 5번째로 크고, 2021년까지 중국과 미국에 이어 3번째로 큰 시장이라고 한다”고 보도함. 또 “쿠팡은 12월 31일 현재 자사 플랫폼에서 총 상품가치가 100억 달러 이상이라고 한다. 2019년에 비해 매출이 60% 이상 증가했다고 전해진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쿠팡이 지난 여름 배달서비스 쿠팡이츠를 출시한 것과 관련 “배달의민족이 딜리버리히어로에 87%의 지분을 팔았을 때 쿠팡을 강력한 도전자라고 쿠팡에게 밝혔다”고 전해 눈길을 끌.

코웨이 3조로 키운 이해선, 넷마블 체제 어디로 이끌까 (전자신문 20.2.9)

코웨이를 매출 3조원 회사로 키운 이해선 총괄사장이 넷마블 체제 첫 대표이사에 선임됨. 회사가 어려울 때 '구원투수' 역할을 충실히 해낸 이 대표는 방준혁 이사회 의장과 투톱을 이뤄 게임과 렌탈이라는 이질적 산업에서 시너지를 내야 하는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됨. 코웨이는 지난 7일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고 이해선 사내이사를 3년 임기 대표이사로 재선임함. 이날 사명을 웅진코웨이에서 코웨이로 바꾸는 안건도 의결됨. 이사회에서는 방준혁 사내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서장원 코웨이 부사장을 사내이사 겸 경영관리본부장에 선임하며 지난해 12월 말 1조 7,500억원에 코웨이 지분 25.08%를 인수한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넷마블 체제를 완성함. CJ제일제당 대표, CJ오쇼핑 대표 등을 역임한 이 대표는 2016년 정수기 이물질 파동을 겪던 코웨이 경영을 맡아 불과 3년 만에 매출을 2조 3,763억원에서 3조 290억원(추정치)으로 4,000억원 이상 늘린 인물. 고객 신뢰 확보, 기술 개발,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 렌탈 업계를 잘 알지 못하는 넷마블이 이 대표를 통해 안정적인 '넷마블 체제 정착'을 꾀한 것으로 풀이. 이 대표 앞에 놓인 경영 환경은 결코 녹록치 않다. 당장 노조 파업으로 일부 고객이 겪은 사후서비스(AS) 불만을 해결해야 함. LG전자가 무섭게 치고올라오는 데 이어 삼성전자마저 '구독경제' 트렌드에 힘입어 가전렌탈 시장 진출이 가시화하는 상황이어서 업계 1위 코웨이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말레이시아에 이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 렌탈시장 성장을 이끌어야 하는 것도 과제. 무엇보다 '왜 게임 회사가 렌탈 회사를 인수했느냐'는 시장의 물음에 답을 내놔야 하는 상황.

베이붐 세대, 큰 손으로 부상...백화점·마트↓ 홈쇼핑·면세점↑ (데일리안 20.2.9)

롯데멤버스가 리서치플랫폼 라임 설문 및 엘포인트(L.POINT) 거래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2020 트렌드픽(TREND PICK)'을 발간함. 리서치 플랫폼 라임을 통해 전국 만 23~64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전후 소비 패턴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대규모 은퇴자 집단의 2016~2019년 거래 데이터를 집중 분석함. 분석 결과, 은퇴 이후에는 백화점 소비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분석 집단의 백화점 인당 이용금액은 2016년 대비 2019년 13%, 인당 이용건수는 2016년 19.0건에서 2019년 15.8건으로 감소함. 대형마트 소비 역시 줄었지만 주로 생필품 구매가 많은 채널인 만큼 감소폭은 크지 않음. 대형마트 인당 이용금액은 2016년 대비 2019년 10% 떨어졌고, 인당 이용건수는 평균 20.2건에서 18.3건으로 감소함. 반면, 은퇴 이후 홈쇼핑 이용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인당 이용금액이 2016년 대비 2019년 42% 증가했으며, 인당 이용건수 역시 2016년 평균 3.3건에서 2019년 5.7건으로 증가함. 그러나 건당 지출액은 2016년 대비 2019년 약 2만원 가량 감소함. 은퇴 이후 TV 시청이 늘면서 홈쇼핑을 자주 이용하게 되지만 기존보다 저렴한 상품 위주로 구매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 은퇴자 부부의 면세점 이용은 전체적으로 소폭(3%) 늘었으나, 남녀 간 차이가 있었음. 여성의 경우 2016년 대비 2019년 면세점 인당 이용금액(10%)과 이용건수(0.3건)가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남성의 면세점 인당 이용금액(-13%)과 이용건수(0.6건)는 감소한 것. 남성은 현직에 있을 때 출장 등 해외여행 기회가 더 많고 여성은 남편의 은퇴 후 해외여행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실제 은퇴 전(2016~2017년)에는 남성의 면세점 이용이 여성보다 더 잦고, 인당 이용금액 또한 17만원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남.

신종코로나 제주경제 영향 카드사 매출보니...면세점 큰 타격 (뉴스1 20.2.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제주경제에 미친 영향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면세점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제주도는 올해 1월 카드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와 비교해 약 7.3%의 매출이 하락했다고 7일 밝힘. 도 디지털융합과 빅데이터팀이 1월 1일부터 이달 3일까지 BC카드 최신데이터를 받아 시·공간·업종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분석 결과, 최초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부터 지금까지 계단식 매출 하락 패턴이 나타남. 2019년 같은기간과 비교한 결과, 도 전체로는 약 7.3% 매출 하락을 보였으며 제주시는 약 7.6%, 서귀포시는 약 2.7% 감소함. 서귀포시와 비교해 제주시의 매출하락세가 상대적으로 좀 더 두드러짐. 업종별로는 면세점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이어 대형 종합 소매업, 편의점, 호텔·여관업, 여행업, 선물용품 소매업 등도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화장품 온라인 거래액 10조원 첫 돌파...'써보고 산다' 공식 깨져 (연합뉴스 20.2.6)

유통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지난해 화장품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남. 6일 통계청과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2조 2,986억원으로, 전년 대비 25.0% 증가함. 화장품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연간 10조원을 넘은 것은 지난 해가 처음. 2018년 거래액은 9조 8,404억원. 화장품은 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 비중에서도 9.1%를 차지해 여행 및 교통서비스(12.6%), 의복(11.0%), 가전·전자·통신기기(10.7%), 음·식료품(9.9%)에 이어 다섯 번째. 지난해 화장품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매달 전년 동월 대비 20%가 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 지난해 3월 거래액은 1조 198억원으로 처음으로 월간 기준 1조원을 넘어서기도 함. 특히 모바일쇼핑의 성장이 전체 화장품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를 이끈 것으로 나타남. 지난해 화장품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7조 3,114억원으로, 전년 대비 32.6%의 성장률을 보임. 화장품 모바일쇼핑 거래액이 전체 화장품 온라인쇼핑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4%로, 60%에 육박함. 화장품 업계는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의 온라인 면세점 거래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화장품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늘어났다고 분석함. 오프라인 매장에서化妆품을 직접 테스트해본 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온라인쇼핑을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가 증가한 것도 10조원 돌파를 이끈. 업계는 인플루언서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마케팅의 확대와 온라인쇼핑 환경 개선 등에 따라 이런 추세가 가속할 것으로 예상. 업계 관계자는 "화장품은 실제 사용 경험과 입소문이 영향을 크게 미쳐 온라인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중시하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온라인 거래 비중이 늘었다"면서 "전체 온라인쇼핑 대비 모바일쇼핑 비중이 60%가 안 돼 성장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설명함.

업종코멘트(2/10-2/14)

유통, 화장품: 주요 면세, 화장품 업체들에 이어 유통업체들의 19.4Q 실적 발표가 금주에 예정. 산업 전체적으로 1분기 실적 부담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연중 저점 인식도 강해지는 상황. 일부 유통 업체들은 4분기 리스회계 기준 변경에 따른 일회성 이익도 부각됨.

국내외 업종 지수 및 Peer 종목군 주가 상승/하락률

지수	증가(pt)	주간 절대 등락률(%)	증감률	1W	2W	1M	증감률	1W	2W	1M
KOSPI	2,165.63	2.20%	롯데쇼핑	-1.30	-13.31	-13.96	현대홈쇼핑	0.93	-1.56	-5.96
KOSDAQ	661.32	2.93%	현대백화점	-0.51	-12.42	-9.35	웅진코웨이	-1.48	-3.46	-4.21
유통업	352.33	0.64%	신세계	2.06	-13.63	-6.84	SK네트웍스	1.51	-3.26	-13.68
주요 환율	현재가	등락률(%)	이마트	-1.35	-7.59	-10.61	아모레퍼시픽	-3.19	-18.57	-11.86
KRW/USD	1,189.40	1.08	롯데하이마트	-3.18	-10.24	-14.97	LG생활건강	3.50	-4.82	3.09
KRW/JPY	1,086.36	0.75	호텔신라	1.83	-11.88	-6.61	코스맥스	3.36	-17.21	-13.25
KRW/CNY	169.72	0.60	신세계인터내셔널	-1.46	-20.78	-11.21	한국콜마	4.85	-13.14	-6.74
			GS리테일	2.90	-0.49	4.62	애경산업	-1.16	-7.13	1.70
			BGF리테일	-3.03	-8.05	-5.33	코스메카코리아	5.94	-12.45	-1.69
			GS홈쇼핑	0.53	-8.93	-9.74	클리오	2.73	-11.57	7.00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

증감률	1W	2W	1M	증감률	1W	2W	1M	증감률	1W	2W	1M
시세이도	0.3	-4.8	-9.2	PROYA	2.3	2.3	15.7	텐센트	7.1	3.6	3.6
로레알	6.3	-1.0	3.2	노드스트롬	7.9	2.9	-5.2	알리바바	6.9	3.3	1.5
상해자화	-2.1	-2.1	-10.6	막스&스펜서	5.3	0.4	-15.1	JD닷컴	7.1	2.1	5.4
P&G	2.0	1.6	4.2	이온 물	4.1	-3.7	-4.4	VIP샵	8.9	2.1	-7.4
고세	1.0	-8.3	-12.2	세븐&홀딩스	3.6	3.6	10.0	코스트코	-0.9	-1.3	-11.8
에스티로더	8.4	3.0	2.7	아마존	2.1	10.1	7.5	이베이	13.2	7.5	6.7
LVMH	5.8	0.4	0.5	월마트	1.6	1.7	-0.2	중국국여	-2.2	-2.2	-11.8
ULTA	9.4	7.4	15.8	테스코	3.0	2.2	0.0	라쿠텐	2.1	-1.8	-6.4
MARUBI	-2.8	-2.8	-0.5	타겟	4.0	0.7	-7.0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글로벌 대표 소비재의 투자지표

화장품 글로벌 피어	시세이도	로레알	상해자화	P&G	고세	에스티로더	LVMH	ULTA	MARUBI	PROYA
현재가(현지통화)	7,108.00	267.80	27.84	127.14	14,870.00	211.53	418.05	293.05	65.60	107.37
시가총액(백만USD)	25,868	164,022	2,676	313,966	8,198	76,054	231,690	16,751	3,767	3,095
매출액 (백만USD)	2017 8,964	29,400	961	66,832	2,738	13,683	48,167	5,885	200	264
	2018 10,381	33,443	1,080	67,424	2,969	14,801	60,083	6,700	238	357
	2019 10,523	32,803	1,118	70,569	3,106	15,951	59,039	7,387	266	450
	2020 11,090	34,718	1,240	73,132	3,277	17,333	64,334	8,004	320	587
영업이익 (백만USD)	2017 717	5,079	54	13,363	437	2,055	9,169	785	51	38
	2018 1,044	6,210	87	14,273	510	2,564	12,589	853	68	57
	2019 1,067	6,101	107	15,759	445	2,837	12,603	895	88	70
	2020 1,235	6,610	120	16,737	492	3,188	13,977	959	108	94
순이익 (백만USD)	2017 203	4,046	58	9,750	276	1,108	6,061	555	46	30
	2018 675	4,198	82	11,767	342	1,935	8,028	656	63	43
	2019 720	4,836	91	13,072	300	2,125	8,063	696	76	56
	2020 812	5,232	99	13,749	334	2,384	9,068	736	91	74
PER (배)	2017 95.6	27.1	63.6	18.7	41.5	31.6	23.0	26.1	N/A	22.1
	2018 38.6	40.0	29.5	28.4	22.1	40.3	29.3	26.9	57.0	62.2
	2019 36.3	34.4	29.8	25.4	25.7	36.5	28.6	24.4	49.5	56.2
	2020 31.9	31.5	27.3	24.0	23.1	32.1	25.7	22.4	41.6	42.4
ROE (%)	2017 5.6	14.5	7.3	18.3	17.6	24.4	19.4	33.4	34.9	19.9
	2018 15.5	15.3	10.4	21.2	19.6	41.0	20.8	35.5	35.6	20.0
	2019 16.5	15.7	10.0	28.6	15.2	47.5	21.1	38.0	23.5	19.3
	2020 16.5	16.2	10.1	29.1	14.7	51.7	20.5	39.3	22.0	21.1

주: 회계 결산연도 기준, 자료: Bloomberg

글로벌 대표 소비재의 투자지표

유통 글로벌 피어	노드 스트림	맥스&스펜서	다카시 마야	이온 몰	세븐&홀딩스	아마존	월마트	테스코	타겟
현재가(현지통화)	39.79	185.35	1,208.00	1,900.00	4,367.00	2,050.23	116.31	254.40	115.14
시가총액(백만USD)	6,178	4,676	1,954	3,933	35,221	1,020,626	329,992	32,235	58,346
매출액									
(백만USD) 2017	15,478	14,194	7,960	2,587	43,162	177,866	500,343	75,384	72,714
2018	15,860	13,624	7,670	2,834	49,887	232,887	514,405	84,391	75,356
2019	15,373	13,512	8,531	2,973	61,379	279,139	525,360	83,741	77,427
2020	15,605	13,465	8,584	3,097	61,764	333,319	542,369	84,996	79,937
영업이익									
(백만USD) 2017	926	208	317	442	3,516	4,106	20,437	2,411	4,224
2018	837	213	241	480	3,727	12,421	21,957	2,843	4,110
2019	839	836	257	563	3,851	13,450	21,779	3,653	4,693
2020	842	775	271	592	3,951	18,616	22,746	3,837	4,961
순이익									
(백만USD) 2017	437	34	212	274	1,626	3,033	9,862	1,584	2,914
2018	564	44	149	304	1,838	10,073	6,670	1,746	2,937
2019	537	457	178	308	1,928	17,030	14,318	2,091	3,278
2020	519	441	161	324	2,105	20,575	14,690	2,299	3,472
PER									
(배) 2017	16.9	168.9	16.1	16.7	21.8	256.6	24.1	16.9	15.6
2018	12.1	132.8	15.6	12.3	21.3	74.5	19.5	16.3	13.2
2019	11.6	10.3	11.2	12.8	18.4	63.1	23.3	15.0	18.0
2020	11.5	10.3	12.2	12.1	16.9	50.4	22.3	13.9	16.6
ROE									
(%) 2017	47.3	0.8	5.6	8.4	7.6	12.9	12.7	14.3	25.8
2018	61.0	1.2	3.7	8.9	8.2	28.3	8.9	10.4	25.6
2019	57.1	12.7	4.4	8.7	8.3	21.8	18.8	11.2	27.8
2020	49.3	11.1	3.8	8.7	8.6	22.1	19.0	11.4	27.7

주: 회계 결산연도 기준, 자료: Bloomberg

유통 글로벌 피어	가르푸	텐센트	알리바바	JD닷컴	VIP샵	코스트코	이베이	중국국여	라쿠텐
현재가(현지통화)	15.71	399.60	220.90	40.38	13.86	310.61	38.00	80.20	874.00
시가총액(백만USD)	13,917	491,803	592,614	58,961	9,272	137,214	30,251	22,423	11,408
매출액	2017	91,546	35,223	37,825	53,678	10,802	141,576	9,927	4,190
(백만USD)	2018	92,903	47,308	56,163	69,900	12,788	152,703	10,746	7,112
	2019	80,281	53,861	74,199	81,912	13,045	163,250	10,787	6,725
	2020	81,971	67,038	95,948	97,480	14,020	174,634	10,779	7,887
영업이익	2017	1,099	12,540	10,476	-124	399	4,480	2,264	520
(백만USD)	2018	878	13,978	8,508	-396	366	4,737	2,222	812
	2019	2,102	16,942	13,423	979	738	5,226	3,015	1,049
	2020	2,498	19,770	18,147	1,485	981	5,630	3,085	1,170
순이익	2017	-600	10,594	9,687	-23	289	3,134	-1,017	375
(백만USD)	2018	-663	11,910	13,081	-377	322	3,569	2,530	468
	2019	1,051	13,488	18,592	1,503	639	3,865	2,372	655
	2020	1,188	16,477	22,590	2,049	810	4,153	2,366	736
PER	2017	N/A	44.5	45.1	N/A	23.8	33.3	30.4	33.5
(배)	2018	N/A	33.1	60.9	N/A	13.0	36.0	16.5	38.0
	2019	13.4	36.4	30.3	39.4	14.7	35.7	13.7	33.6
	2020	12.0	29.8	24.6	29.0	11.7	33.3	12.7	30.4
ROE	2017	-5.2	33.2	19.9	-0.4	19.5	26.6	-10.9	19.0
(%)	2018	-5.8	27.2	N/A	-4.5	13.5	26.1	35.3	20.4
	2019	9.8	24.7	21.3	12.5	20.2	23.3	52.6	23.6
	2020	10.7	23.4	17.7	14.8	20.5	21.7	95.0	22.3

주: 회계 결산연도 기준. 자료: Bloomberg